

# 정신건강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리 베르그손에 따르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기 이전에 호모 파베르이다. 즉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만든 도구에는 그 제작을 이끄는 하나의 착상, 즉 하나의 관점, 하나의 상상력이 담겨 있다. 한 시대를 상징하는 도구에는 그 시대를 표상하는 특별한 상상력이 담겨 있고, 이 상상력은 그 사회의 물질적 제도와 상상적 제도 양자 모두를 관통한다. 예를 들면,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는 도구인 망원경에 투영된 상상력과 지상의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주권적 존재로서의 왕을 상징하는 절대군주제에 투영된 상상력은 동일하다. 하나는 하늘의 절대적 입법자를 상상하고, 다른 하나는 지상의 절대적 입법자를 상상한다는 점만 다를 뿐, 양자 모두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를 상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갈릴레이의 고전 물리학을 이끈 기계적 상상력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법정치학적 개념으로 재현된다.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홉스는 국가를 기계인간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물질적 제도의 하나인 과학기술과 상상적 제도의 하나인 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혹은, 상상적 제도가 물질적 제도에 앞선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흔히들 법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즉 사회가 모두 변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변화를 반영하여 변하는 것이 법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관계를 역사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법의 변화가 과학기술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자연법칙 개념의 발명 과정을 분석한 에드가 질셀은 이렇게 말했다. “神[신]은 宇宙[우주]의 입법자라고 말하

는 데카르트의 관념이 장 보댕(Jean Bodin)의 主權論[주권론]<sup>1)</sup>의 불과 40년 후에 발전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sup>2)</sup> 즉 지상의 입법자인 왕이 제정한 법이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주권 개념의 반영으로, 하늘의 입법자인 신이 제정한 법은 자연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는 개념, 즉 자연법칙의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고전 물리학의 기계적 상상력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테일러는 이 상상력을 공장 경영에 적용하면서 이른바 “과학적 노동 관리법”을 고안하였다. 테일러주의는 공장을 거대한 기계장치로 간주하고, 노동자는 이 기계의 부품, 거대한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작은 톱니바퀴로 간주한다.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디에고 리베라의 「디트로이트 산업 벽화」 등은 모두 테일러주의의 기계적 상상력을 잘 재현한 작품들이다. 테일러주의에서 노동자는 신체적으로 종속된 존재이다. 노동자는 경영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체로 간주된다. 노동자에게 생각은 금지된다. 구상은 경영자의 몫이다. 노동하는 자에게서 정신과 육체는 인위적으로 분리되고, 노동은 사물화된다. 자연스럽게 산업안전의 문제는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에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사이버네틱스적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은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컴퓨터를 만든 인간은 이제 인간 자체를 컴퓨터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사이버네틱스적 상상력은 노동자를, 시계톱니바퀴가 아니라, 이족보행 컴퓨터로 취급한다. 기계적 상상력의 시대에 사람들이 부적처럼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신이 시계였다면, 사이버네틱스 시대의 물신은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력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멍하게 있거나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나사가 빠졌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요즘에는 “방전되었다.”,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기계적 상상력을 일터에 재현한 것이 테일러주의라면, 사이버네틱스적 상상력을 일터에 재현한 것은 숫자에 의한 경영이다. 테일러주의가 노동자를 복종하는 신체로 취급했다면, 숫자에 의한 경영은 노동자를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기업도, 나아가 대학과 정부 등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대상

- 1) 『국가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1576년 혹은 1577년에 출판되었다. 보댕은 이 책에서 절대적이며 영속적인 권력으로서의 주권을 국가의 본질이라고 했다.
- 2) 조제프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III, 을유문화사, 1988, 266면에서 재인용.

으로 취급한다. 테일러주의가 주로 노동자의 신체를 겨냥했다면, 숫자에 의한 경영은 노동자의 몸과 마음 모두를 겨냥한다. 노동자를 포함하여 프로그래밍된 모든 주체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숫자 지표에 반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시니피양(기표)이 시니피에(의)를 대체하고, 노동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사라진다. 그리고 숫자로 제시된 계량적 목표의 달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에 따르면, “이성은 노동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하고 미친 상상력을 제어한다.” 인간의 커다란 뇌는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노동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언제나 망상에 빠질 수 있다. 숫자가 현실을 밀어내는 일터에서는 심리적 장애와 불안감이 증가하고, 노동은 테일러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물화의 위험에 빠진다. 숫자에 의한 경영은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사이버네틱스적 상상력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한 이후, 2002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2018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그리고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법의 관심은 신체적 건강에 치중되어 있고, 정신건강 문제를 본격적인 산업안전 의제로 인식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의 기획특집은 “정신건강”을 주제로 다룬다. 프랑스, 벨기에, 일본의 관련 논의를 소개한다. 프랑스 원고는 정신건강 이슈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 즉 “직장 내 정신건강 접근방식”과 “사회심리적 위험성 접근방식”을 대조한다. 전자가 증상의 치료(스트레스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원인의 치유(업무조직방식과 노동환경의 개선, 사전적 위험예방 등)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의 접근방식이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벨기에 원고도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벨기에의 법제가 2014년에 “직장 내 심리사회적 위험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통합되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심리사회적 위험성이란 “사용자가 영향을 미치고 객관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

의 조직,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직장 생활 조건과 직장 내 대인 관계 등의 요소에 노출될 경우,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신체적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심리적 피해를 입을 개연성”을 뜻한다. 반면에 일본은 사회심리적 위험의 저감이라는 방법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대응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심리적 배려”를 중시하고, 일과 사람의 적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두 나라와 일본의 접근법이 다소 차이가 나는 데에는 직장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개인의 삶에서 직장과의 의미 등 문화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외국의 제도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난 규정과 제도만이 아니라, 그 심층에 깔려 있는 문화와 사회적 상상력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KLI**